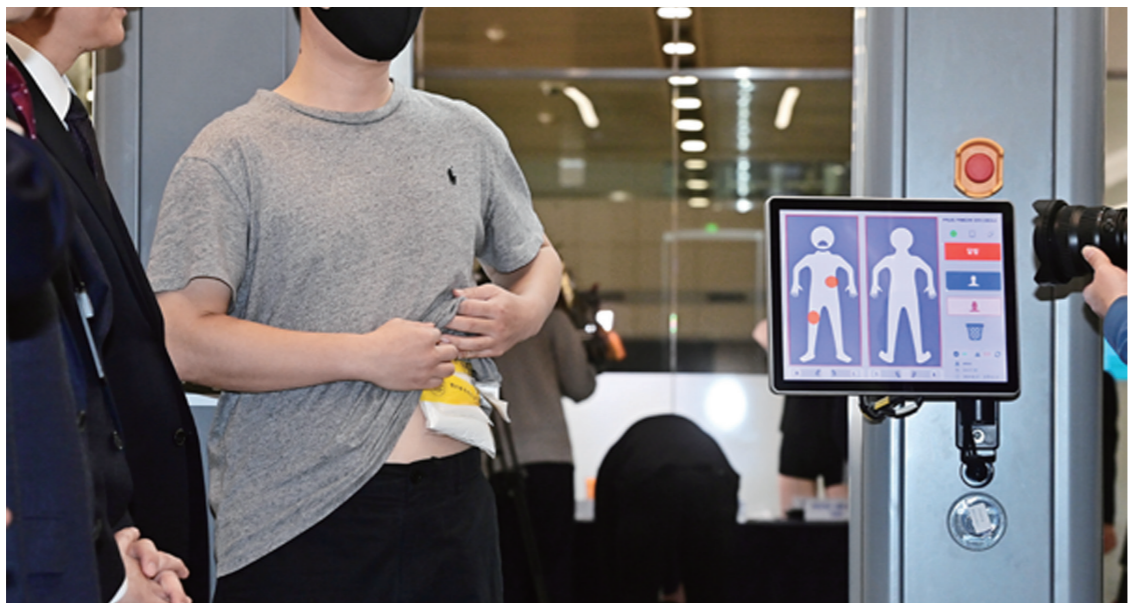


옷 속에 숨긴 마약, 3초 만에 찾을 수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 입국장 마약단속 현장 점검 밀리미터파와 신변검색기 올해 13대 전국 배치 “마약 밀수 지능화... 끊임없이 새 대응 고민”



관세청은 17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단속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날 점검은 국제선 여행객들로부터 확산되는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은 총 704건 중량은 769kg으로 지난 2022년보다 단속 건수는 9% 감소한 반면

중량은 23% 증가했다. 단속된 마약 종류로는 필로폰 155건·438kg, 대마 212건·143kg, 케타민 69건·38kg,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89건·30kg 순으로 조사됐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328건·327kg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194건·274kg, 여행자 177건·148kg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고광호 관세청장과 김중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입국장에서 '밀리미터파와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마약 밀수 단속 점검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은 방화 등으로 출입국 수요가 높은 지난 11월 법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국장에서 한 남성 승객이 문형 검색기를 통과하자 검색기 중간에 설치된 별도의 화면에 이 남성의 오른쪽 복부와 왼쪽 허벅지에 빨간 점이 표시됐다. 이 남성이 검색기를 통과한지 3초 만에 몸 안에 숨긴 마약을 적발한 것이다.

세관 직원은 해당 남성의 특수검사를 통해 복부와 허벅지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냈다.

밀리미터파와 신변 검색기는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볼 수 있는 '문형 검색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지만 금속과 비금속, 액체류, 가루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검색기와의 차이가 있다.

이 검색기는 1~10mm의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를 쏘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원리로 승객의 옷 속에 숨겨진 소량의 가루도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밀리미터파와 신변검색기는 현재 인천공항에 총 3대(T1 2대, T2 1대)가 설치됐으며, 관세청은 올해까지 총 13대를 전국 주요공항과 항만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마약밀수는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광주남부소방, 송암산단협의회와 화재안전간담회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중룡)는 지난 15일 관내 화재안전 취약시설인 송암산단 단지를 찾아 송암산단협의회와 화재안전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2024년 소방복지서비스 업무개시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119생활안전순찰대 2024년도 소방복지서비스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진소방, 아파트 관계자 대상 화재안전 소집 교육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파트 관계자 화재안전 소집교육을 지난 1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소방,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이취임식

나주소방서(서장 박연호)는 지난 12일 나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경찰,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회' 운영 및 협약식 개최

담양경찰서(서장 박송희)는 지난 16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약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보훈청, 2024년 제대군인 멘토 위촉식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정부광주지방보훈청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대군인 멘토 위촉식을 개최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카톡으로 신고·상담 가능

여가부, 피해 접수 앱 개발...상반기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 착취 상담지원 사업은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앱과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의 81.3%, 성 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로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는 4609건, 성 착취 유인 정보는 4079건 신고가 집계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다양한 유형의 성 착취 피해로 확대해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 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성 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과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제작·유통이 있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사체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 해나갈 계획이다.



수원 못골시장, '가래떡 나눔 행사'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못골시장과 함께하는 가래떡 나눔 행사'에 참석한 시장상인과 시민들이 180m 길이의 가래떡을 이어 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긴 가래떡을 뽑는 가래떡 나눔은 못골시장의 대표 행사다.

집안에 액상대마 100개 쌓아둔 40대 공급책 검거

필로폰 0.2g·0.5g 80여개도 포함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판매에 관여한 40대 마약 공급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하고 매매에 관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상선으로부터 필로폰과 액상대마 등을 공급받아 마약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 필로폰 0.2g과 0.5g 80여개, 액상대마 100여개를 쌓아둔 뒤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이기로 한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 과정에서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로 하여금 찾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A씨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SNS를 이용해 상선과 접선, 공급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뒤에는 상선으로부터 1회당 3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서구 농성동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 경로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이슬비기자